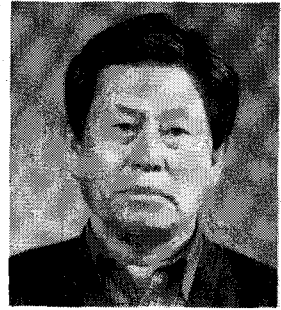




유제품의 차별화로 국산우유의 가치를 고취시키자



박 춘 서
본회감사

나는 30년을 낙농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

우유가 남아서 격일 집유로 우유를 버리는 일도 있었고 또한 유대 일부를 전지분유등 유제품도 받고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좋아질 날만 기다리며 열심이 노력한 결과 각 유업체와 낙농업이 많이 발전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앞을 바라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유제품의 완전 수입개방을 눈앞에 두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당시 농림수산부와 관련단체들은 희망이 있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할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대처할까?

걱정스럽다. 그리고 우리의 원유의 70~80%가 시유로 소비되고 있는데 설마 외국산 시유까지 수입할 수 있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 전 호주정부에서는 멸균유의 유통기한을 현행 7주를 8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도 우유가 남는다고 한다. 우리와 근거리에 있는 일본 역시 우리를 공략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론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우리 낙농분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질 것을 자명한 일인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에게 유제품에 차별화로 재인식시켜야 되겠다. 요즘 유행어가 되어 있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을 강조시켜 국산우유에 대한 재인식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우유의 가치관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벽한 착유의 환경과 이상적인 사양관리를 통하여 생산한 양질의 청정우유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소비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생산자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소비자에게 유제품에 차별화로 재인식시켜야 되겠다. 요즘 유행어가 되어 있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신을 강조시켜 국산우유에 대한 재인식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우유의 가치관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벽한 착유의 환경과 이상적인 사양관리를 통하여 생산한 양질의 청정우유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소비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그리고 잠재수요를 개발한다.

현재 유업체에서까지 유염료가 아닌 음료제품을 생산하므로 스스로 우유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고도의 홍보전략으로 유업체의 생명력 유지에 힘

써야 되겠고 또한 이윤이 적은 학교급식을 원유가 모자란다고 대체하거나 기피하지 말자 가뜰이나 아이들이 흰 우유는 맛이 없다고 유색우유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자.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낙농업의 장래를 위한 확실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현 협회장이 생산하는 고부가제품 양질의 청정우유를 소비자의 기호를 헤아려 입맛에 맞게 제품을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살길을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만이 '95년에 출범할 WTO(세계무역기구)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대비할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에 바라건데 선거공약으로까지 약속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낙농기자재에 대한 관세 또한 특별 소비세를 면세하여야 할 것이며 집유 일원화 검사공용화를 거론한지 얼마가 되었는데

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낙농진흥법 역시 거론조차 없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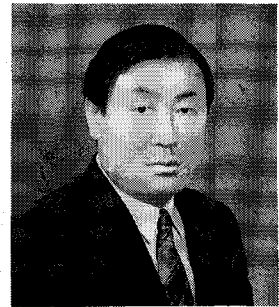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비교우위 수출전략이라는 미명아래 무수히 수탈과 피해를 당하였다. 앞으로 낙농가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낙농가의 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반면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

농민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사까지도 걸려있는 막중한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는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낙농산업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임 문 식

본회이사.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장

회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메워 나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한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낙농업은 그 어느때 보다도 도전과 시련이 많았다. 세계가 새로운 무역질서로 개편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돌

입하므로서 구조적 취약성과 냉엄한 국제경쟁을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채 유제품시장이 전면개방됨으로써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또한 사상 유례없는 폭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

올해년 올해도 우리 낙농은 어려움과 혼란이 예견되어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화, 개방화를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전무